

2025 Vol. 27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경상북도 양자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5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초광역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20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4. 글로벌/광역협력

52

04
R&D 성공사례
광주형 광기반 양자융합산업 육성 전략
(광산업의 양자 전환과 도약)

57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경상북도 양자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북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이슈페이퍼(ISSUE PAPER)

경상북도 양자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북연구개발지원단

I. 추진배경 및 정부정책

◆ 양자과학기술은 초산업 분야에 접목되어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로 국내외 양자기술 동향 조사·분석, 연구자 발굴, 교류·협력 지원 등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 1경(京)배(1억의 1억배) 이상의 빨라진 연산 속도는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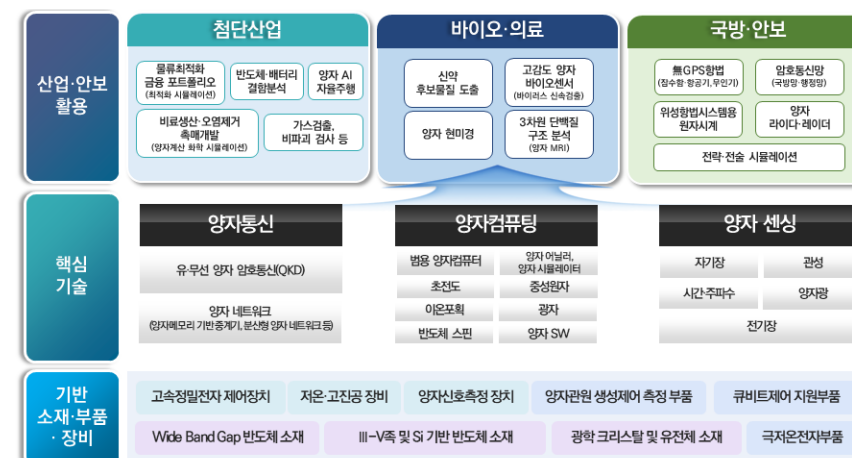
●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既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

* 양자기술 또는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자상태를 생성(쓰고), 제어(전송, 저장, 처리), 측정(읽고) 및 분석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으로 구분

- 현재 산업화 초기단계로 시장규모는 양자컴퓨팅이 가장 크지만 성장률측면에서는 양자통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인력 유입이 쉽지 않은 분야로, 지속적인 투자, 인력양성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 시급

양자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



■ 중앙부처 양자 기술 정책

-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21.04.) 2030년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투자전략 수립
 - * ①도전적 원천연구 강화, ②전문인력 확보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③특화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계·고도화, ④양자기술의 활용 및 산업혁신 촉진
-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근거 마련, '21.06.)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
 - ※ 양자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22.10.) 미래성장과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 (양자기술특별위원회 구성, '21.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컴퓨팅, 통신, 센싱, 기초 기반), 활용(경제, 안보) 분과와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3.03.) 과기부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024년 ~ 2031년, 총사업비 9,960억원)
- (과기부 연구용역 발주, '23.04.) 「양자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 연구」(수행기관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90백만원)
- (과기부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발표, '23.05.)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결, '23.05.)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법안 의결,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 수립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 추진
-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 '23.06.) 우리나라 최초 양자과학기술 국가 전략
- (「퀀텀 이니셔티브」 발표, '24.04.)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2030년대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4.11.) 양자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 마련

⇒ 정부 육성전략에 맞추어 경상북도 대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경북형 양자 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필요

⇒ 양자기술은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하여 지역내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해 양자기술 활용 생태계 조성 지원

II. 국내·외 및 타 지자체 동향

1. 글로벌 동향

■ (시장동향) 전 세계 양자과학기술 시장은 연평균 36.0%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30년 101조 2,414억원으로 커질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CAGR
양자통신	16,886	24,086	35,998	47,255	69,115	100,400	126,319	175,130	245,793	39.8%
양자센서	19,111	21,596	24,511	27,845	31,660	36,029	41,073	47,028	65,450	16.6%
양자컴퓨팅	50,658	69,377	99,484	132,471	186,533	276,723	363,640	519,725	701,171	38.9%
합계	86,656	115,058	159,993	207,571	287,307	413,152	531,031	741,883	1,012,414	36.0%

※ McKinsey (2021) & Mind Commerce (2022)

- (구글, 양자컴퓨팅) 54큐비트 시카모어 초전도 프로세서로 양자우월 증명('19.10.) 이후 성능 고도화 중이며, 상용 양자컴퓨터 개발 목표 제시('21.05.)
- (화웨이, 양자통신) '16년 독일 뮌헨에 양자연구소 설립하고, '18년 상용 광통신망에 양자암호를 적용하는 필드 시험을 수행
- (Bosch, 양자센싱)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네비게이션용 NV기반 양자자이로스코프 및 자기장 센서 개발, 나이트 비전용 양자이미징센서 등을 개발 중

■ (양자 기술 주요국 정책동향) 양자 기술이 상용화되면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¹⁾되고, 무엇보다 양자 기술이 뒤처질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국들은 양자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선제적인 노력

- (미국)「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 연구에 집중('18.12.)
 - * 정부가 산·학·연·관 협력,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표준화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기 5년간 12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
- (중국) 국가전략 6대 분야 중 하나로 양자 연구를 선정, 연간 약 2,970억 원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13조원, '17~)
 - * 세계 최초 양자 위성 발사('16), 베이징-상하이 간 장거리 양자 통신망 구축('17), 베이징-비엔나 간 장거리 양자 화상통화 구축('18)
- (EU) EU는 Quantu`m Flagship 프로그램을 통해 '18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를 양자 컴퓨팅, 양자통신, 관련 기초과학 등에 투자

1)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양자 기술 시장 규모가 2035년에는 20억 달러(2조 4,300억 원), 2050년에는 2,600억 달러(약 3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BCG, "The coming quantum leap in computing", 2018.5.16.)

2. 정부 R&D동향

■ 정부는 양자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정하고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미래기술 패권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양자과학기술의 고도화
-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 확대
- 미래기술 패권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양자과학기술의 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민·관 협력)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마련('25.下)
 - 스타트업 지원 전용 펀드조성 및 양자 분야 창업·투자 촉진, 국방 분야(양자암호통신) 활용 사례 창출과 기존 산업 적용을 위한 실증
 - * 美·英·佛 등 주요 9개국 참여 퀀텀개발그룹(QDG)과 연계한 글로벌 투자자 포럼 개최 등
 - * 주요연계형 실증 사업('25년 50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 및 차세대기술개발('25년 99억원)
- (기술개발)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글로벌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대형 R&D 프로젝트 본격 착수
 - *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양자메모리 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및 양자기기 간 연결 실증, ▲세계 최고수준 양자 센서 개발 등('25~'32)
 - '25년 양자의 해(UN 지정) 기념 선포식, OECD 공동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양자기술 시장역학 분석

- (촉진요인)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기술로서 산업·경제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양자컴퓨팅의 경우 기존 디지털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하여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저해요인) 연구범위의 한계, 인력 교육·훈련, 기술이전, 소재 개발, 예산지원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양자기술은 물리학, 수학, 전기공학,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학제간 연구교류가 필요하고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까지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여 전문인력 교육이 어려움
 - 또한 표준화 미비,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의 어려움, 인력 수급 불일치 등으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미흡함

- (기회요인) 주요국 정부는 지속적·연속적 정책 지원을 통해 양자기술 원천기술 선점에 집중하고 있음
 - 우주항공·국방·금융 등 산업적 활용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자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을 컴퓨터의 기계학습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
- (위협요인)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논문, 특허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어려움
- (공급자 협상력)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자의 협상력이 구매자의 협상력보다 높음
 - 공급자 중심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차별적 기술 우위는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3. 타지자체 동향

■ (강원)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과 국가 R&D과제 수행,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체계적 추진

- 강원-KT 양자정보통신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및 '양자암호통신시범인프라 구축운영사업(과기부)' 선정('21.03.)
- 강원-ETRI 양자정보기술 R&D 업무협약 체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자기술강원연구소(한림대) 개소('21.06.)
 - 경량형무선양자 중계플랫폼 개발사업('22~'26),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22~'30)
- 미래양자융합포럼* 전국 지자체 최초 참가('23.02.)
 - * '21. 6.창립 기업 국가연구원 대학 등 전국 102개 기관 양자전문가 구성
- 한림대 주관, '양자기술 혁신연구센터 공모사업(과기부, 500억원)' 신청('23.05.)

■ (부산) 양자기술 선도기업 IBM 등 국내외 네트워크 및 퀀텀 콤플렉스 기반의 '퀀텀 이니셔티브(양자컴퓨터 주도)' 추진

- 부산-IBM, 양자컴퓨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22.07.) 및 동서대 IBM 퀀텀 허브센터 개소('22.08.)
- 부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동서대학교-한국퀀텀컴퓨팅(주),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기반 조성 업무협약('22.11.)
- 양자컴퓨팅 관련 R&D 및 기업 집적·창업 촉진을 위한 복합건물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구축 등 양자컴퓨팅 주도 사업계획 발표('23.02.)

-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 이득 도전연구 사업(과기부)’ 선정(’23.05.)
- 부산시는 예산 투입을 통해 독립적인 양자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여 부산의 산업적 특성(금융, 물류 등)을 반영하는 자체적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를 구축할 예정임

■ (대전) 지역내 풍부한 양자기술 연구 인프라를 결집하여 양자산업 선도 거점도시 구축 추진

- KAIST가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돼, ’31년까지 8년간 국비 234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팹(Qfab)을 구축할 예정임
- 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공동기관으로 참여, SK텔레콤(주) 및 대전테크노파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함

■ (인천) 연세대 양자클러스터 신설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양자컴퓨터 허브화 추진

- 연세대-IBM, 세계 5번째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계약 체결(’22.07.), IBM의 최신 사양인 ‘127-Qubit (Eagle Processor) IBM 퀀텀 시스템 원’ 유치 추진
- 연세대 연세사이언스파크(YSP)에 양자컴퓨팅센터(4천319.7㎡)와 양자연구동(4천249.7㎡)이 포함된 양자클러스터 신설 승인(’23.05.)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들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양자 바이오산업의 허브화 도모

■ (충북) 충북양자연구센터를 충북대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31년까지 8년간 국비 37.5억 원을 투입해 과기정통부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국내 지자체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고 양자과학기술 이론·실습 통합교육과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기업 양자 전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 양자과학기술의 이해와 활용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동시 촉발을 목표로 함

III. 경상북도 양자기술산업 추진현황

■ (정책동향) 경상북도 양자기술산업 추진 전략 발표(’24.06.),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기관 간 MOU 등 지자체 차원의 양자산업 지원방안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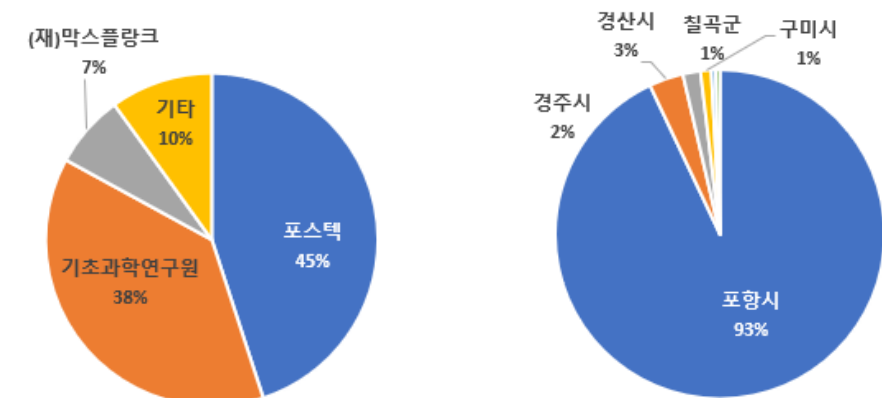
■ (R&D현황) 경북 지역 양자기술 관련 국가R&D사업 집행 금액은 1,102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3) 연평균 9.5% 증가

- 소수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및 양자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물리학, 소재 관련 R&D과제 추진
- 대학을 중심으로 소재·나노, ICT·SW 분야 기초연구 과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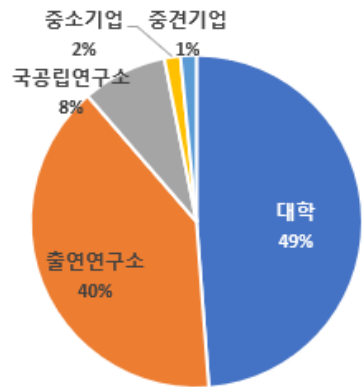
경북 지역 양자기술 관련 R&D 특징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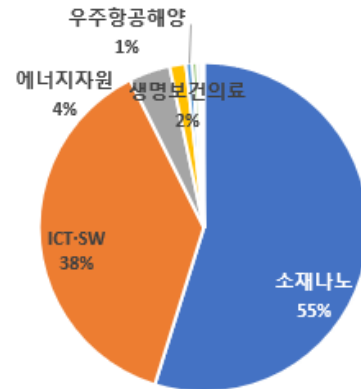
시군별



연구수행주체



중점과학기술



* NTIS DB 활용, 양자(quantum) 키워드 검색(기간 2020.01.01.~2023.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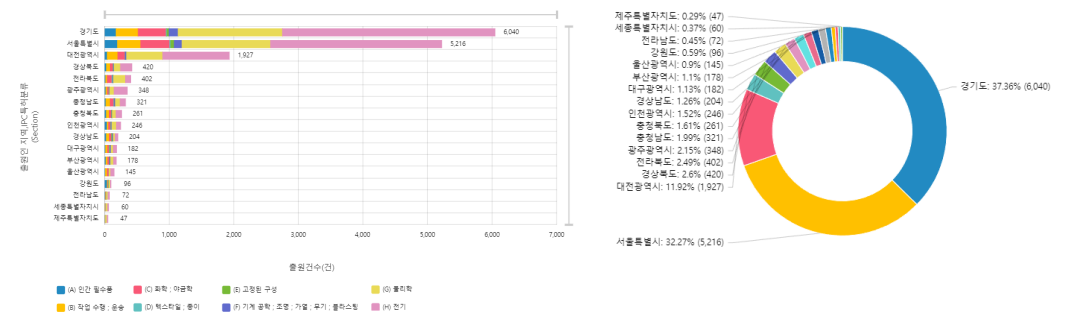
■ (지역여건) 양자기술 수요산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및 ICT 인프라(포항, 구미)를 기반으로 양자통신 관련성이 높은 수요산업, 연구개발에 강점 보유

- (포항) 포스텍, (재)막스플랑크한국 등을 중심으로 기초물리학 및 양자물질·물성,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사업 추진
 - 포스텍, 확장형 양자컴퓨터기술융합 플랫폼센터 사업 추진
 - * 과기부, 공학선도연구센터(ERC) 공모사업 선정('19 ~ '25) / 총사업비 150.6억원
 - 포스텍, '자유공간 양자통신기술 테스트베드사업 기본계획' 용역
 - * '21.10. 완료, 道 미래전략기획단(포스텍 김윤호 교수, 18백만원)
 - (재)막스플랑크한국, 나노기술기반신소재양자물성연구사업
 - * 과기부, 막스플랑크한국(포스텍연구소)선정('22 ~ '27) / 총사업비 301억원
- (구미) 금오공대, 세영정보통신이 양자통신, 바이오·의료 R&D 과제 수행
- (R&D 역량) 대학 중심의 기초·원천연구 위주 과제수행,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은 초기 단계
- (전문인력) 최근 4년간 도내 대학 및 연구소의 정부 양자 관련 R&D사업 연구책임자 19명(포스텍 14, 기타 5), 양자대학원 중심의 핵심인력 양성
- (연구인프라) 가속기 등 대형 연구·기초과학 시설을 구축·활용 중에 있으나, 양자기술 연구장비, 실증, 인프라 전무
- (양자산업) 양자 관련 기업(전국 102개) 8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은 양자기술 기반 기업은 한자리 수, 연관기업은 다수

■ (특허현황) '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출원건수는 16,165건으로 수도권, 대전 다음으로 경북 랭킹(경북 420건, 2.6%)

- 물리학, 전기, 화학 분야 출원 비중 높음

국내 양자기술 관련 특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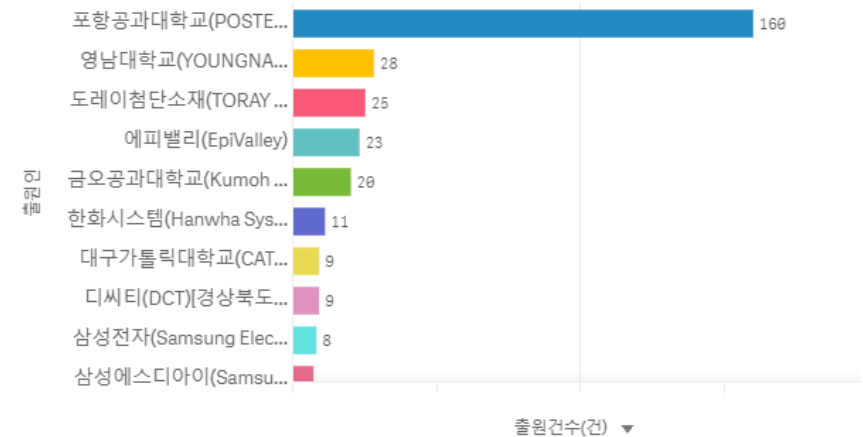


- 경북지역 출원 특성을 살펴보면, 전기, 물리학 분야 출원 비중 높은 것으로 보아, 양자통신 분야 성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주요출원인으로는 포스텍, 영남대 등임

경북 양자기술 관련 특허 현황

출원인별 출원/등록건수



IV. 경상북도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양자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양자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양자기술의 확보를 통한 공급망 구축은 해외시장 개척까지 기대
 - 미래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양자기술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다원화와 함께 주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내재화 중요
- (양자기업 육성)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에 필요한 양자광학용 부품 및 양자연산소자 등 양자정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부장 기업 육성
- (양자 지역협의체 구성)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산업전환, 양자 기술의 적용 과제 발굴 추진
- (양자 분야별 협력허브 구축) 정부의 양자포럼 등 지역대학과 산업계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석학도 초빙하여 양자통신 거점기관 선포 등 정책홍보 필요

■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 확대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기획부터 이전 기술 상용화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며, 양자기술과 연계한 스타트업 발굴은 물론 지역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양자기술을 접목한 업종전환과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 성장지원을 통해 경북 양자기술산업의 생태계 구축

■ 현재 국내 양자과학기술은 초기 단계로 산업의 규모도 작고, 핵심 인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에서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산업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육성·지원이 요구됨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초광역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초광역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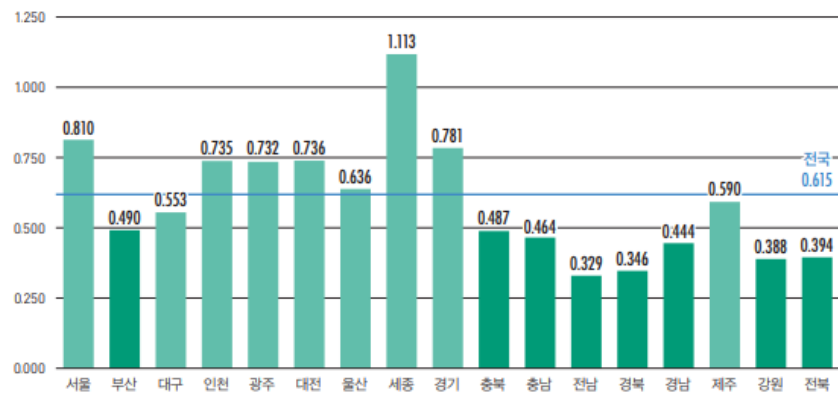
전북연구개발지원단

1. 서론: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0.86%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력에서도 수도권이 전체 GDP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의 산업·경제적 불균형과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기준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협단계에 진입하며 소멸위험이 광역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지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연계·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광역 경제권’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간 협력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메트로폴리탄 지역’ 개념을 통해 대도시와 인접 지역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كل랜드 등을 포함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광역 협력은 단순한 행정적 협력 수준을 넘어,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략적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값 (출처: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2024: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 초광역 연계·협력의 필요성

최근 다양한 정책과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역 모두 초광역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를 고려할 때, 지역 간 단절된 발전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광역 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간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황과 문제상황	대응방향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진입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적 대전환(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및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발굴이 시급	대도시권 지식서비스기능 강화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 차원의 공동연대
지방대학의 위기, 고급 기술인력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및 민간기업 연구소의 수도권 이전 등에 따른 지방의 혁신생태계 와해 상황	혁신지원기관의 선택과 집중, 특성화, 연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초광역권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이 필수적이며, 초고속 교통수단과 5G 등 미래 인프라 구축이 시급	지역 간 효율적 연계망 구축과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산업구조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 원천 창출이 어려운 상황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초광역협력 차원의 공동 대응 및 산업 대전환을 위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 필요

3.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산학연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미래핵심분야 기획 및 지역전략원천기술을 개발·확산하여 지역혁신 선순환체계 구축과 자생력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에 목적을 두었다.

구분	세부 결과	
권역별 분류	<지역혁신 도약형(25건)>	
	충청권 7건 (28%) 호남권 2건 (8%) 동북권 11건 (44%) 동남권 5건 (20%)	충청권 6건 (20%) 호남권 12건 (40%) 동북권 1건 (3%) 동남권 11건 (37%)

※ 2023년도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권역별 수요현황 (서울,경기,인천 제외)

당시 초광역 연계협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별로 추진된 초광역 연계 협력 사례가 지역혁신도약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제주)의 경우 초광역 협력형과제(12건, 40%)가 지역혁신도약형(2건, 8%) 과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북의 경우 농생명산업 및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속 발전되어 왔으나, 향후 미래 먹거리 선점 및 산업 대전환을 위해 미래전자,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공유하고, 초광역 경제권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번	지원유형	주관지역 (참여지역)	분야
1	초광역협력형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미래전자, 모빌리티
2	초광역협력형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시)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기기
3	초광역협력형	제주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선박
4	초광역협력형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바이오
5	지역혁신도약형 (단독)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용 의약품

* 참고) 2023년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분야(초광역연계형 4, 지역혁신도약형 1)

4. 시사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

초광역 연계·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만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지역이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지역에서 추진되던 주력산업의 한계를 벗어나, 타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획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기 연구회 개최 등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지역, 광역-광역 연계 ·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초광역 연계 · 협력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추진 필요성이 높으나 국내 사회의 정서상 초광역 협력 접근 체계 간에 지역 간 유불리에 대한 이해 관계로 작용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범부처 및 지방정부 간의 행정기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초광역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하며, 이제는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 4. 글로벌/광역협력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전략 산업과와 협력하여, 강원 지역의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을 기획했다. 이 계획 수립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핵심 요건인 과학기술 창출 집적지구 내 대학 3곳, 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에 따른 핵심 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고, 이를 통해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는 그동안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기획된 강원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였다, 강원광역연구개발특구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4대 핵심 분야의 첨단 R&D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번 특구는 기술 창출 1개 지구(대학, 출연연구소)와 기술 사업화 3개 지구(산업화 집적단지) 등 총 16.7㎢ 면적을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강원광역연구개발특구는 타 지역의 특구와 달리 광범위한 공간을 다루며, 지역 간 주력 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연계 및 융합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앞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 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특구 지정까지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https://m.kwnews.co.kr/page/view/202501211644315037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9170>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관계자, 연구진, 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 경기도 특화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소부장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소부장 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발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경기도 AI산업 생태계 현황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형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인프라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 기능 강화 ▲산업 내 AI 기술 확산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2건)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등의 연구도 수행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정책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https://www.gbsa.or.kr/board/industrial_trend.do) https://www.gbsa.or.kr/board/industrial_trend.do

경상북도, 2025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월 17일(금) 경북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2025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과학기술혁신계획,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연계 2026년도 중점사업 보고에 이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24년 추진 실적 및 2025년 시행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경북도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립과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대인 만큼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6기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이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025년 제1차 광주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광역시시는 2025년 2월 7일에 제1차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핵심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 회의는 광주광역시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위원회로, 문화경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교수, 지역 혁신기관장, 지역 기업 대표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혁신 및 기본정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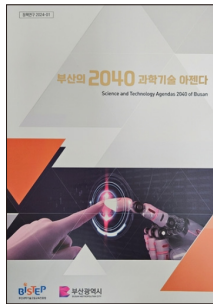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4년 추진 실적 및 '25년 시행 계획'을 검토했다.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 예산 감소(총 1,969억 원 감소) 및 사업별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사업(△780억 원), ▲인공지능 집적단지(△528억 원), ▲무인 자율주행 실증사업(△104억 원) 등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했다. 반면, 신규 추가 사업은 22개 사업(722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2024년도 과학기술 예산의 실적 점검을 통해 2025년도 과학기술진흥 추진 방향 및 투자 계획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발굴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2040 과학기술 아젠다’ 발간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분야	40개 아젠다		
건강	Mental Health	반복되는 팬데믹	건강 데이터 소유 및 공유
	디지털헬스 및 정밀의료	난치성 질환 및 예방의료	고령자 지원 니즈의 증가와 대응
경제	노동인구 수급의 gap	노동생산성 저하	공유경제 확산
	비표준적 근로형태	이시(이인도) 및 이비(리미)의 성장	
교육·문화·관광	Reinventing Education	고등교육기관 혁신	
	관광 니즈의 변화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산	
기술활용	Exponential Technology	Digital Literacy	Technology standards
	기업의 Resilience	데이터주권	AI Ubiquity
도시	Smart Mobility	다자점 금융	신기술 윤리
	Urbanisation	도시의 스펙트럼	인프라 공공시설 노후화
환경·재난·에너지	순환경제로의 전환	수질·토양 대기 오염	탄소중립
	재해·리스크 심층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	Resource 경쟁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 양식	해양생물 다양성	자원의 바다 의존도 증가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부산의 2040년 과학기술 트렌드를 담은 정책연구보고서 ‘부산의 2040 과학기술 아젠다’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190여 개 국내외 싱크탱크와 국제 기구에서 발표된 2040년의 트렌드를 대규모로 조사한 첫 사례이다. 이러한 미래의 글로벌 트렌드나 이슈들은 향후 부산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확보하거나 부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로서 중요한 정보들이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부산이 스스로 지역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아젠다화하여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비하는 기틀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

부산의 2040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 총 667개의 아젠다 후보를 도출하고, 총 3차례의 필터링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7개 분야의 40개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아젠다들은 부산의 국비 유치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수월성을 담보하고 허브도시가 되기 위하여 부산이 주목해야 할 아이템들로서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등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산 과학기술·산업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9건이 발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bistep.re.kr/kor/CMS/Board/Board.do?mCode=MN013&&mode=view&board_seq=3151&

보도자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231040154217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7051

‘양자과학기술 분야 특허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예정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양자과학기술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양자과학기술 분야 특허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양자과학기술 중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과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양자기술의 산업 분야 적용·활용 추이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독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여 2월 중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시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관련 정책연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 양자기술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s://www.stis.or.kr/home>)- 게시판·발간자료

세종시, 지역 특성 반영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추진 첫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특구 전담조직(TF)의 첫 번째 회의 개최
[세종시 제공]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지 및 지구별 특징
[세종테크노파크 제공]

세종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추진에 첫발을 뗐다.

시는 13일 시청 집현실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TF)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특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구 TF는 시가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11월 기회발전특구에 각각 지정된 이후 올 들어 지난달 17일 구성됐다.

TF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이 총 망라됐다.

이들은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홍보 ▲교육 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부서(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특구 TF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를 통해 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가 첨단산업과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892>

보도자료 세종시 - 보도자료

*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eonilbo.com>)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정책연구는 인천 주요 미래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내 우수기업의 R&D 기반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항공분야 특허분석을 통한 인천지역 핵심기술 탐색에 관한 연구 : 국내 항공특허 4,690건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도출된 7,639개 단어들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8개의 항공분야 핵심기술 토픽 도출
 2.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 개선방안 연구 : 인천시 우수기업 운영, 선정기업 현황, 국내 사례분석, 인터뷰 분석을 통해 우수기업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개선방안 도출
 3. 인천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2단계('25~'29년) 개선방안 기획 연구 : 중앙정부 지역 R&D 정책동향 조사, 타 지자체 R&D 사업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인천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핵심과제·세부추진(안) 도출(5대 전략 및 15대 핵심과제)
- 상기 연구 중에서 특히 항공분야 특허분석을 기반으로 인천지역 핵심기술을 도출한 연구를 통해 지역 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과 인천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기획 연구를 통해 R&D 기반의 지역 내생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과제(15대 핵심과제)까지 도출한 점이 돋보였다.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인천R&D관리시스템과 인천TP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irds.itp.or.kr/user/index.php) <https://irds.itp.or.kr/user/index.php>(발간자료-연구보고서)

전북자치도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어 낼 '제10기 과학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위원회 성과점검 및 제10기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전북자치도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전북자치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 이번 10기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도내 주요 연구기관장과 대학 등의 각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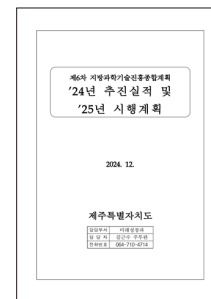
위원회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방위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한 신기술·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며 전북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정책 강화를 위해 도내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도 주도해 나갈 예정인만큼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보도자료](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283)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28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대한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추진된 166개 사업, 집행액 150,861 백만 원 및 2025년 시행 예정인 177개 사업, 투자액 226,731 백만 원의 분석이 포함되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할 주요 과학기술분야 사업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실증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제시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제주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미래 선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관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협의회는 혁신계획의 중점과학기술분야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원 분과로 나누어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 2024년 12월, 제7회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끝으로 2024년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개최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향후 추진되어야 할 미래사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기관의 일반현황 및 추진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관간 협력 도모 및 제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수립, 사업기획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제25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 개최

주제: 제주 펫푸드 분야 연구 및 산업 발전방안 모색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1월, '제주 펫푸드 분야 연구 및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제25회로 개최된 이번 포럼 주제발표에서는 제주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농수산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으로 청정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펫푸드 제품 개발에 주목하였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펫푸드 연관 지역기업이 참여할 가운데 제주지역 펫푸드 육성을 위해 필요한 펫 타겟 소재 연구, 펫푸드 제조, 기능성 및 안전성 테스트의 상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검토해 제주 원료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정책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제주매일: 기능성 청정 제주원료로 펫푸드 산업 경쟁력 '쑥쑥'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41870>) 등 20건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25년 시행계획(안) 심의

충남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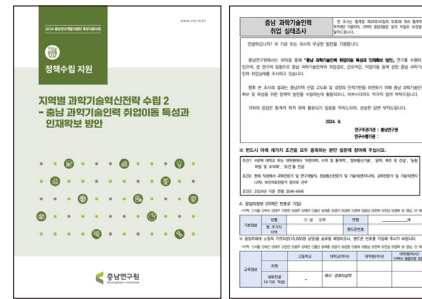


충청남도과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월 12일 오전,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25년 시행계획(안) 심의로,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산업경제실장,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을 비롯하여 위촉직 위원 총 18여명이 참석하였다. '25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추진 방향으로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형 R&D 지원 체계 구축, ②지역주도 혁신형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③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업기반 조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 내 총 15개 부서에서 6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약 1,022억원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연구개발 과제 국가사업화를 위한 R&D 기획 및 성과평가체계 연구,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 여건 속에서 도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인공지능·양자 등 과학기술 역량 결집 - 도, 12일 '2025년 제1회 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시행계획 논의 - <https://www.chungnam.go.kr/cnportal/cnappcPressList/cnappcPress/view.do?ntid=2151876&menuNo=500498&searchCnd=1&searchWrd=&pageIndex=8>

'충남 과학기술인재 취업이동 특성과 인재확보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충청남도 내 과학기술인력의 정주여건 마련, 성장기회 제공 등 충남도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이공계열 전공자 중 충남소재 사업장 이공계열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경로 근로여건 직업 이동 등의 내용으로 '충남 과학기술인재 취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충남 과학기술산업 취약(사업체 수 충남 전체 대비 0.9%, 종사자 수 평균 절반 수준인 1.7%), ②충남 과학기술인재 일자리 부족, ③충남 과학기술인재 낮은 일자리 질(주된 퇴직 사유 보수, 근로시간) 등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매년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충남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프로젝트 참여 촉진, 산학협력 체계 강화,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언하고 15개의 사업을 제안 하였다.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과기원, 제4회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포럼 성료

- 고정호 과기정통부 과장 기조강연서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중요성 강조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12월 10일 청주에서 제4회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R&D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국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 과학기술 전문가, 산업계 등 60여 명이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정호 과장이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현대인 단장은 디지털로 재창조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충북을 주제로,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풍산디에이케이 차선오 연구소장은 R&D 프로젝트 기반 기술 상용화 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지역-기업 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의 성장 촉진 방안이 논의되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R&D 성과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앞으로도 지역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화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융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논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진 자리였다.

[보도자료](https://www.c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93) <https://www.c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93>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강원 혁신기관 워크숍 추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내 혁신기관 간 2024년 성과 공유 및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 과제에 대한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춘천 상상마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6년부터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이 행사를 해마다 추진해 왔으며, 2024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 및 도내 36개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 혁신기관들의 최근 현황을 소개하고, 각 기관별로 2024년에 추진한 사업과 2025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광역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 수립 경과, 2024년 강원산업맞춤형 R&D 기획뱅크 및 강원주도 R&D 마중물 지원사업의 우수 성과, 2025년 강원혁신 R&D 지원사업 추진 일정과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R&D 발굴 촉진과 혁신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강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회문제해결형 R&D 과제기획 컨설팅 회의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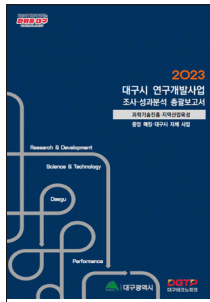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과제기획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보고서의 공모사업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사회문제해결R&D 전문가와 수행기관,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등이 참석하여 지역 주도 R&D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R&D 기획 및 수주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중심의 R&D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제해결 중심의 사업 기획을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특화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되었다. 또한,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현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업화 및 시스템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5개년 종합계획에서 성과의 사업화 목표가 핵심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듯이 R&D와 비R&D 자원을 연계하는 합동 과제나 시스템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미래 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들이 논의되었으며, 지역 주도형 R&D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총괄보고서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024년 11월 「2023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총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II)와 다르게 대구 시비가 수반되는 중앙 매칭 및 대구시 자체 사업(R&D/비R&D)의 투자 현황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액은 261개 사업, 4,101억원(국비 2,396, 시비 1,704억원)으로 '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로 이는 중앙 매칭 사업이 전년 대비 -7.0% 감소한 영향이다. 연구개발활동(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18.7%, -463억원 감소한 1,719억원이며, 비연구개발활동(비R&D)은 18.9%, 332억원 증가한 1,48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괄보고서는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잠정적인 투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2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I)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2024년 12월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2022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I)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대구시에 편성된 중앙, 중앙 매칭 및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투자·성과 현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I)은 보고서(II)와 다르게 대구 시비가 수반되는 중앙 매칭 및 대구시 자체 사업(R&D/비R&D)의 투자·성과 현황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자는 859개 사업, 10,618억원(국비 8,916, 시비 1,70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중앙 매칭 및 대구시 자체 사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7.3%씩 증가하였다. 성과는 SCI논문 2,040건, 특허 2,091건(출원 1,464, 등록 627), 기술이전 397건(기술료 254억원), 사업화 건수는 3,039건으로 나타내었다. 보고서(II)는 대구시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과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지역 과학기술진흥·지역 산업육성 분야 및 지자체가 정책기획,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dtis.re.kr)- 발간자료-조사분석보고서

DTalks+ 과학산업커뮤니케이션, 몽상가들이 그려가는 과학산업 혁신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과학기술진흥원(DiSTEP)은 2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시민참여 과학산업 커뮤니케이션 ‘디톡스+(DTalks+)’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다 나은 대전 과학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새로운 시 각에서 살피고 방안을 공유하는 통섭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초청강연은 이순철 KAIST 교수가 ‘양자, 끝없는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양자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과 과학산업 혁신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양자컴퓨터의 특징 중 하나는 방대한 병렬연산에 기반을 둔 엄청난 연산능력”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암호 해독, 시뮬레이션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신물질·신약 개발, 초고도 인공지능(AI) 출연 등이 가능해졌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강연으로는,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만남, 그리고 유레카’를 주제로 세계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사례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청년의 새로운 발견과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활용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영화평론가 유튜브버 ‘라이너의 컬쳐쇼크’는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을 소개하며 상상을 바탕으로 미래 현실을 가늠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시민과의 소통 시간에는 강연자와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대전의 과학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보도자료 <https://v.daum.net/v/20250212182104224>

DAON(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평가위원 모집 기능 구축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DAON)는 전문가 정보 관리와 평가위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기능을 구축하였다. 평가위원 모집을 할 경우 DAON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 중 전문분야, 소속정보, 경력등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구성하고 추첨을 통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전문가 정보 관리의 엑셀 등의 파일을 활용해 관리되었으나, 이는 보안이 취약하고 데이터의 이력 추적이 어려워 관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DAON 시스템은 전문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보 보안의 수준을 강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평가위원의 참여 이력 추적 기능을 통하여 특정 전문가에게 평가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은 지난 2월 19일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 모집 기능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실무자 및 전산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DAON은 대전광역시 국가R&D사업/과제/성과관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대전지역 지식 정보 포털이다. 사용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기획 아이디어 발굴, 정보·동향 분석, 사업·성과관리, 전문가 활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https://daon.distep.re.kr/account/expert) <https://daon.distep.re.kr/account/expert>

2024년 BISTEP 지역혁신 정책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2월 17일(화)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2024년 BISTEP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선박 보수·수리·정비(MRO)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변화에 부산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조선산업에 대한 트럼프 2.0의 영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① 트럼프 당선의 부산경제 영향과 대응책(부산연구원 이상엽 선임연구위원) ② 트럼프 당선에 따른 조선기자재산업 전망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창민 책임연구위원) ③ 부산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과제(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이우평 선임연구위원) 순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효제 단장 주재로 지역 산학연 전문가와 앞으로의 부산 조선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였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주도로 추진된 이번 포럼은 시급한 대외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앞으로 부산이 준비해야 할 전략과 방향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899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899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3117495694381>

울산 과학기술맵 수립 및 배포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 연지단에서는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산업기술맵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보고서는 자동차, 조선, 화학소재, 수소,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ICT, AI, 산업기계, 환경, 비철, 양자컴퓨터산업 등 14개 산업에 대해 산업개요, 글로벌 메가트렌드, 지역현안이슈, 지역여건,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한 연관기술 분류 및 세부기술을 도출하였다. 해당보고서는 UTIS에 업로딩 되어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에 배포되었다. 울산 연지단은 올해도 산업기술맵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자료를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http://www.rnd.utp.or.kr) www.rnd.utp.or.kr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R&D) 투자 현황을 심층 분석한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어,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전북특별자치도 유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지역 R&D 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발간된 보고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현황, 전북자치도유입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등이 제시되며,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다양한 세부지표에 따른 연구비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R&D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귀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별, 분야별 투자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등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2024년 조사분석 보고서 4종 발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2월, 제주지역의 과학기술분야 및 R&D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분석 4종(▲제주특별자치도 R&D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R&D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을 발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R&D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2023년 수행 사업 대상, 성과분석 보고서는 2022년 발생 성과를 기준으로 최근 5년의 분석을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보고서는 지역혁신기관 26개의 세부 현황을 다루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2023년까지 구축된 장비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발간된 조사분석 보고서는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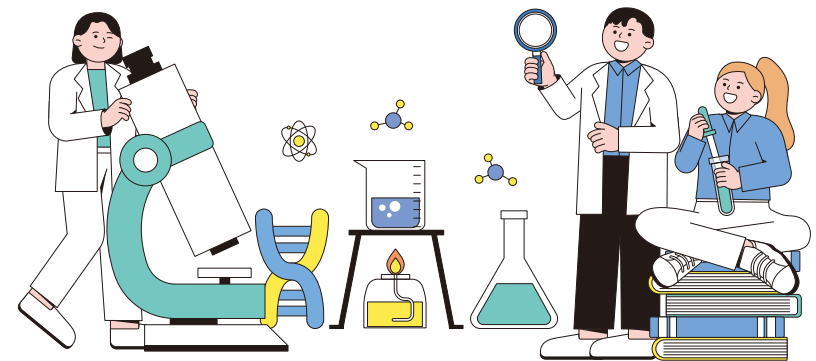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월 8일 지역 산업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주요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이 발표되었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산학협력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및 인력 현황 ▲대학 주요 현황 ▲산학협력 추진 실태 ▲정책적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산학협력 정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과 학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미래기술을 향한 재걸음, ‘경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중앙정부산업정책 방향,항공·원전·방산 분야 기업의 첨단기술 소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2024경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정보를 도내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남도의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부 지원 및 보호제도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과 지원방안 발표가 진행됐으며 ▲항공, 원전, 방산분야의 도내 주요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에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이현희 교수의 첨단기술의 보호와 기업의 대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례로 보는 지식재산(IP) 전략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경남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각기 다른 육성법을 가지고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첨단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방산, 원전, 반도체를 비롯한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기업의 기술개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도내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최신 기술 공유 포럼과 세미나 등을 경남에서도 활발히 개최해 도내기업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도자료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0190000092320118>

“경남 과학문화 견인”... 경남TP, 성과공유회 열어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과학문화 연계형 신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2배 더 확대 진행한 것으로 나왔다. 아울러 경남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아이템 발굴과 지역 과학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13~14일 이틀간 거제 삼성호텔에서 ‘2024년 경남 지역 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세미나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과학기술 및 문화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자, 지역민들이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연계형 신사업 발굴을 크게 확대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5건의 과학문화 연계 사업이 주로 보고서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반해 올해는 도서벽지와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메이커 활동’과 ‘21세기 과학상점’ 운영 등 총 91건의 체험 위주의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역민에게 과학문화를 보다 가깝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행사 첫날에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혁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며, 경남 과학문화의 실질적 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박정민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경남 지역은 긴 해안선을 활용한 과학 체험의 잠재력이 크다. 지역 과학센터 설립은 과학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경남 과학문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역 과학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유재욱 경남TP 과학기술진흥팀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남 과학문화가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역 맞춤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민에게 과학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1141526509107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3차년도 성과확산 워크숍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명동 II’에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3차년도 성과확산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 참여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학계, 기업 등 총 75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GIST 공득조 교수가 3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각 세부 과제별 추진 결과와 개발 기술 시연, 그리고 단계 평가 대비 보완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현재까지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GIST 김준하 교수가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사업 확장성 논의가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와 특징, 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필수 환경,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교육과 문화를 위한 AI’를 주제로 진행된 AI 정책전략 포럼 내부세션에서는 과제 추진 목표, 메타버스 개요 및 시장 전망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네 가지 전략기술에 대한 개발 성과가 집중 조명되었다. ▲전략기술1: 배경 생성 저작·개발 도구 서비스 구현, ▲전략기술2: 캐릭터 저작·개발 도구 서비스 구현, ▲전략기술3: 교육 콘텐츠 관련 사용자 UX/UI 기반 콘텐츠 강화 기술 개발, ▲전략기술4: 인공지능 기반 음성 및 오디오 콘텐츠 저작 기술 개발

나아가, 각 기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플랫폼, 미래 모빌리티 안전 관리, 그리고 인간-로봇 협력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와의 확장 연계 방안이 모색되며, 실증 개발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부별 1단계 성과를 토대로 향후 2단계(서비스 고도화) 추진 계획과 기술 간 연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가 기업들은 자율 네트워킹을 통해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기술 개발 성과를 실증하고, 향후 지역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미래 개척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 확산과 혁신적인 기술 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산업 융합 밸류체인 창출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세미나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지역 미래산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대구 미래산업 간 융합 밸류체인 창출」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1월 25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연구개발지원단과 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미나는 의료,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의 융합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혁신적인 산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정책 동향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로봇 산업에서의 대규모 비전-언어 모델(VLM) 활용 연구와 대구 지역 로봇 산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의료헬스 AI 분야의 프라이버시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동향과 헬스케어 산업 간 협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기술 및 개발 동향과 미래차 공급망 변화 전망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통해 향후 산업 변화를 예고했다.

세미나 후에는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산학연 관계자들과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의료·로봇·모빌리티 산업 및 ICT(AI) 융합을 통한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지역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협력과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혜기업 성과간담회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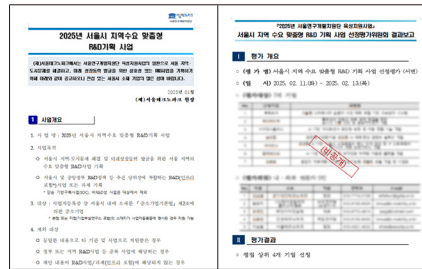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주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성과조사·검증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성과자료 수집의 효율화와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대구지역산업육성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1월 21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기존 대구지역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던 대구지역의 R&D과제 관리를 2024년 12월부터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육성사업 R&D과제의 관리기관으로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활용조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성과입력 방법의 시연,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성과입력 현황과 일정을 공유함과 동시에 성과조사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성과조사시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관리기관에서는 2025년 새로 시작되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공고일정, 규모, 지원 상세내용 등 신규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대구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R&D사업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5년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 과제 선정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서울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 지역수요 맞춤형 R&D기획 사업’을 수행 중이다. 금년도에는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도출된 R&D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과년도보다 이른 시점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사업 수행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에 선정된 R&D과제의 산업 기술 분야는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분야로 모두 서울시 전략산업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분야이며, 서울시 및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후 절차로는 선정 과제의 특성과 기업의 희망 컨설팅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을 실시하고, Kick-off 회의를 거쳐 기획방향을 확정 및 수차례의 컨설팅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에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도 서울 지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실질적 R&D기획 내실화를 위해 R&D기획을 지원하여 서울시 지역·도시 문제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인천 R&D·지식재산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2월 26일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강소특구 사업단과 합동으로 ‘2025년 인천 R&D·지식재산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지식재산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25년도 인천 R&D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R&D 관련 유관기관들이 최초로 합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R&D 및 지식재산 지원 사업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수행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강소특구사업단이 지원사업들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지역 내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에도 R&D 합동설명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견고히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1702)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1702>

전남테크노파크, 산업용 고출력레이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지난 4일 장성 레이저산업 센터에서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출력 레이저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관계자, 산업계,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가 함께 고출력레이저 시설 등의 구축 기획 및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고출력레이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레이저 광원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응용분야 발굴, 사업규모 및 지역, 대내외 환경분석,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 공유했다.

또 레이저 산학연 심포지엄 개최, 정부·학술단체·산업체 등의 협력으로 레이저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제안이 이뤄졌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레이저 기술 강국 도약으로 초격차 기술을 선도 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 첨단레이저 로드맵 마련, 레이저 광원 및 응용분야 원천기술 확보, 세계적 수준의 레이저광학 및 핵심부품 조달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http://kpenews.com/View.aspx?No=3472649) <http://kpenews.com/View.aspx?No=3472649>

전남테크노파크, 친환경자동차 튜닝 현황·발전 방향 제시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는 전라남도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4단계)을 통해 튜닝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1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튜닝산업 연관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성길 한국교통안전공단 과장을 초청해 ‘친환경자동차 튜닝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약자를 위한 튜닝 추진배경 및 사례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튜닝 ▲고령(고위험) 운전자를 위한 튜닝 ▲사용 후 배터리 튜닝 ▲전기차튜닝 EV컨버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최명호 회계법인길인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부보조금 회계교육의 일환으로 ‘사업비 불인정 기준 및 그 예시’를 들어 올바른 보조금 사용을 독려했다. 양지현 사람숲 컨설팅 대표로부터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기술’로 성과를 내는 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료 간의 소통법, 언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른 이동수단의 변화에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규사업에 적용하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아갈 선도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https://www.etnews.com/20241216000225) <https://www.etnews.com/20241216000225>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주요사업 통합설명회 ‘성료’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19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무안 소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20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위원장, 전라남도 기반산업과 박부영과장,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심상완과장 및 중소·중견기업 사업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사업의 방향과 사업추진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 서부권(무안)을 시작으로 20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동부권, 순천), 오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중부권, 나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는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일자리 연계지원 ▲지식재산 지원 ▲사·도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별 설명 이후에는 기업별 현장상담 등이 이뤄졌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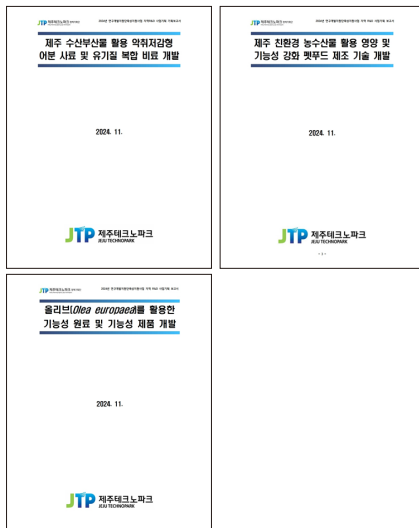
자리에 참석한 전남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현실적인 기업지원 정책 수립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TP 오익현 원장은 “최근 경제 산업 환경의 어려운 위기속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http://www.namdonews.com)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R&D과제 3건 발굴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으로 지역 R&D과제 3건을 발굴하였다. R&D과제를 발굴하기에 앞서 제주지역 미래먹거리 창출,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3개 기업은 기획보고서 작성 자문위원 1:1 매칭 및 기획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허·시장 동향 분석을 지원받았다. 발굴된 과제 3건은 모두 BT 분야로, 제주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품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연지단은 지역기업의 R&D사업 기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R&D 기획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기업이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 디지털 르네상스 실현, 충북 디지털 워크에서 펼쳐지다

- 11월 5일~8일, 문화제조창에서 충북 디지털 워크 행사 개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2024년 11월 5일(화)부터 11월 8일(금)까지 청주 문화제조창 일대에서 ‘2024 충북 디지털 워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북, 디지털 르네상스 실현’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디지털 콘텐츠 전시, 홍보, 강연,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흐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충북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첫날인 11월 5일(화) 오후 6시 30분, 문화제조창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연희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마이크로소프트 이웅세 부문장, 네이버클라우드 강민석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드론쇼가 펼쳐진다. 충북이 디지털 혁신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문화제조창,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34동에서 디지털 기업의 성과 전시와 상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6일(수) 14시부터 문화제조창 5층 대공연장에서 ▲‘2025 트렌드 코리아’ 공동저자인 권정윤 박사의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과 디지털 시대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과, ▲60만 구독 유튜브인 조코딩을 초청하여 “챗GPT와 똑똑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7일(목)에는 ▲디지털 창업기업을 위한 IR 피칭 특강, ▲생성형 AI 주제의 강연, ▲기업에게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아울러, 8일(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가 참여하여 도내 디지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AX시대 전략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더 행복한 충북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충북과학기술포럼으로 행사가 성료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이번 행사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을 주제로 한 행사로, 도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가깝게 체험하고, 충북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959)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959>

충북과기원, 국산 AI반도체(NPU) 활용 전략 모색

- 국산 AI반도체(NPU)의 실증 및 산업 전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은 17일 오후 2시 충북과기원에서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협의회 반도체분야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북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 학 연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국산 AI반도체(NPU)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 현장의 현안 해결이나 AI반도체(NPU)의 국산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충북대학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융합 연구센터(과기부 RLRC센터 지정 / '22. 5.)와 지역 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전문기업인 네패스, 지역 내 제조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국산 AI 반도체(NPU)를 활용한 제조 공정 내 활용 등 산업 전반에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을 논의하였다.

한편 충북대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융합 연구센터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연구(RLRC)센터로 지정되어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이동형 로봇 등에 적용하는 멀티칩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 중이며,

(주)네패스는 충북을 대표하는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분야 전문기업으로 지난 '23년 12월에 NPU IP가 내장된 “야누스(JANUS)”와 분산학습 IP 구동 시스템을 공개하여 국산 AI반도체 분야에 선도적인 성과를 공표한 바 있다.

향후 본 협의회에서 도출되는 국산 AI반도체 활용을 위한 전략에 기반하여 지역 내 제조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추진 및 네트워킹을 거쳐 산 학 연의 협업으로 AI반도체(NPU)의 성능 고도화, 현장 실증, 사업화 및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상하는 신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과기원 고근석 원장은 “지역 내 AI반도체 분야에 우수한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충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충북이 AI반도체 산업을 대표하고 중부권 최대의 디지털 중심 지역으로, 이후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885)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0885>

충북과기원, 청주대학교와 RISE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발전 생태계 완성을 위한 협력의 발걸음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과 청주대학교 (총장 김윤배)가 28일 청주대학교에서 충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공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라는 지역발전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전문인력 양성 과 취업 정보 교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과기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발전 생태계 완성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서 “RISE를 계기로 대학-혁신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은 “청주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성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보도자료](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227)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227>

제28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성과교류회 개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작년 12월 17일 오후, 충청남도 미래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유관부서를 초청해 충남연구원 과학기술 진흥본부에서 '24년도에 진행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충남의 과학기술 성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2024년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되돌아 보고, 충남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논의되었다. 특히, 2025년 사업방향도 함께 제시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소개되었다.

이로써, 2024년 한 해 동안 충남연구원은 총 4회에 걸쳐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각 포럼은 모빌리티 헬스케어의 융합,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국가 사업비 확보 방안을 순으로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루어졌으며, 지역 내 과학기술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충남연구원은 2025년에도 더욱 지역 과학기술의 성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https://www.gnnews.co.kr/news/article.html?no=604567) -충남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 공유의 장 마련-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html?no=604567>

4. 글로벌/광역협력

2024년 제3차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 유탄윙블레스 호텔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4년 제3차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주요 기관과 전국 각지의 연구개발지원단 단장 및 실무자 약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성과 공유와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경기 연지단의 이승 단장이 발표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프로젝트는 판교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창업 혁신공간 조성, G-펀드 조성, 국제 스타트업 서밋 개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반면, 경남 연지단의 유재욱 팀장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특화 전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통합 홈페이지 제작, 백서 발간, 공동 스케줄러 개발 등 구체적 공동연구 추진 과제들이 공유되며, 정책자료 및 통계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와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큰 관심이 모아졌다.

협의회와 함께 개최된 역량강화 워크숍은 연구개발지원단 간의 인적 교류와 역량 증대를 목표로, 2024년의 주요 성과와 ‘25년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 연지단과 경남 연지단의 성공 사례 발표와 더불어, STEPI의 한웅규 연구위원의 강연에서는 전북 탄소산업과 광주 광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분석, 지역 기업의 혁신 구조 확보와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의 R&D 성과 확산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협의회 및 워크숍은 지역 특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광역 공동 기획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4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대회 공동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2024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대회가 지난 12월 6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는 한국유럽학회에서 주관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공동주최로 ‘글로벌 지역갈등과 협력 : 유럽의 사례와 한-EU 관계에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한-EU 과학기술협력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EU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은 자크 폴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가 ‘룩셈부르크가 유럽의 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1은 ▲유럽 현안에 대한 자유주제 ▲트럼프 2.0 시대의 한-유럽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영향 ▲한-EU 과학기술 협력 ▲축구로 보는 유럽에 대해 논의됐다. 또 세션2는 ▲EU 규범의 글로벌 확산과 영향 ▲한국과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럽의 지역갈등과 협력 ▲한-EU 과학기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과 라트비아의 탈러시아화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학회에서는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도 임성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부대표가 유럽대상을 수상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와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 공동의 과제들이 주요 선거 의제로 떠올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EU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보도자료](https://www.imaail.com/page/view/2024120619510399191) <https://www.imaail.com/page/view/2024120619510399191>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 협의체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1월 27일(수) 부산아스티호텔에서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 협의체 성과공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협의체는 선도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된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경남연구개발지원단과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이 함께 동남권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정책연구, 조사·분석, 사업기획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올해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아이템을 발굴하여 이에 맞는 조사·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의체의 1년 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및 실증분야’에 대한 전문가발표를 시작으로, 협의체의 주요 성과와 조사·분석결과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연구개발지원단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주축이 되는 사업 기획회의를 진행하며, 발굴제안서를 최종검토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5년에도 동남권 광역 연계형 협력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있고 내실화된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올해부터 초광역권으로 확장되는 협의체 운영방향에 맞춰 동남권과 함께 협력생태계를 고도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https://www.fnnews.com/news/202411291102439668) <https://www.fnnews.com/news/202411291102439668>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62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12913011676489>

세종테크노파크,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MOA 체결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세종테크노파크-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MOA 체결식 모습 [세종테크노파크 제공]

세종테크노파크와 라오스 국립 수파누봉대학교가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A, 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2일 세종TP에서 진행된 초청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세종TP와 수파누봉대학교는 ▲창업 및 중소기업 공동 사업 발굴 ▲기술 교류 및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활성화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라오스의 창업 정책 수립과 창업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TP-수파누봉대,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확대

이번 MOA 체결은 세종시와 루앙프라방주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라오스 내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TP가 보유한 창업 지원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라오스 현지 창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TP 양현봉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의 창업 지원 경험과 자원을 적극 공유하여 라오스 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OA 체결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세종시와 루앙프라방주 간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향후 창업 지원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978)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978>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충북과기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AX교육 개최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Azure 플랫폼을 활용한 AX 교육-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Microsoft와 함께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AX 교육 개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최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2024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AX(인공지능 전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은 총 3회로 11월 22일(금), 29일(금), 12월 6일(금) 매주 금요일, 청주시 오창 소재의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AX교육은 2024년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문가가 교육을 직접 강의하고, Microsoft의 Azure 클라우드와 Azure OpenAI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Overview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zure 플랫폼을 기업현장에 무료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은 지난 11월 1일 지정된 2024년 총 5개 기업으로 (주)디엘정보기술, (주)비즈포스, 성창주식회사, (주)시큐웨어, (주)에니아소프트(가나다 순임)이며 우수기업은 향후 3년간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으며,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교육은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충북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https://www.cc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 <https://www.cc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

04 R&D 성공사례

광주형 광기반 양자융합산업 육성 전략
(광산업의 양자 전환과 도약)
광주연구개발지원단

R&D 성공사례

광주형 광기반 양자융합산업 육성 전략 (광산업의 양자 전환과 도약)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미래 전략기술이며, 새로운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육성과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 양자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왔으며, 광통신, 광센서, 광소자 부품 관련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산업이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정체되면서 산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의 광산업 기업들은 기존 광산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구축한 기술적 노하우 및 인프라를 통하여 산업 전환 적응력이 매우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광주는 기존 광산업을 양자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5년)
사업체수	158	157	151	167	168	2%
종사자수	11,660	11,359	11,912	11,682	11,915	1%
생산액	41,813	44,532	46,434	52,436	63,206	11%
부가가치액	14,189	16,148	14,494	16,720	16,99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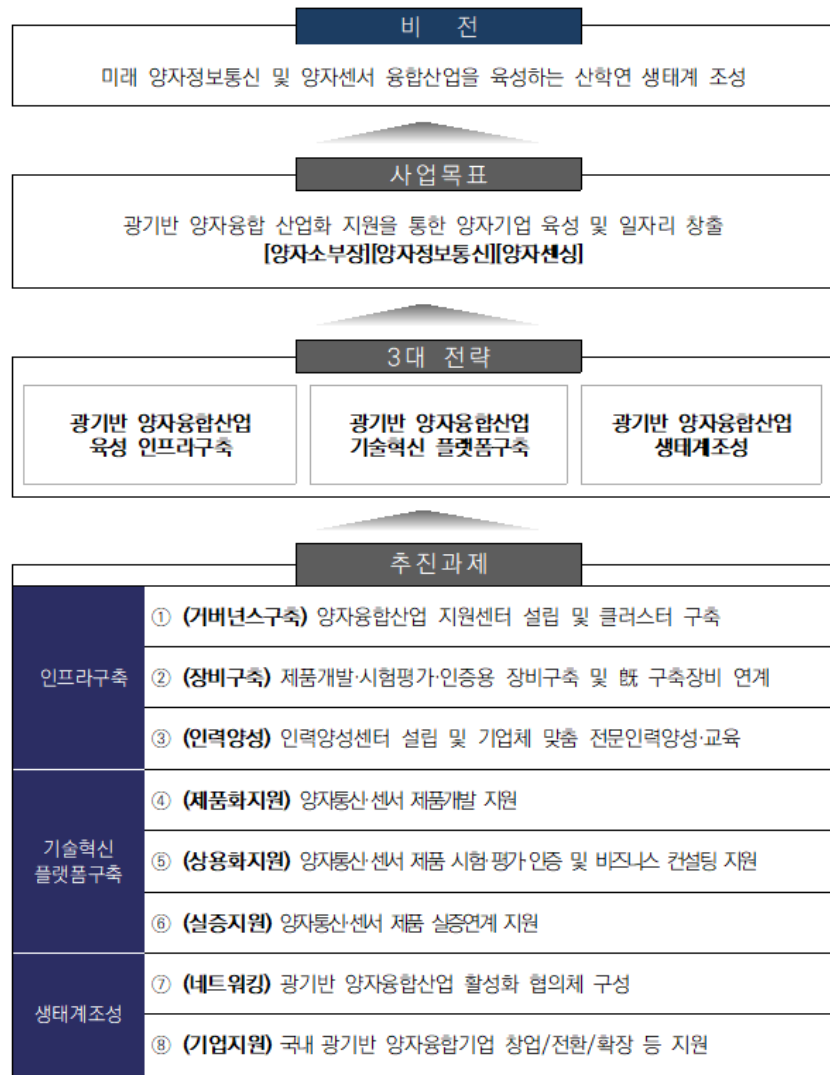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조사/서비스업조사(10인 이상), 2018~2022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광산업은 생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생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다. 이는 곧 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 ① (지역 핵심 광산업 기업) 최근 생산액·종사자수·사업체수는 정체기에 접어들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광산업이 아닌 광양자기술 융합분야로의 생태계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
- ② (지역 양자소재부품산업) 광통신, 광센서, 광소자부품산업 육성과 더불어 양자소재부품 수요산업군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역량을 강화

[광주형 광기반 양자소재부품산업 육성 기획]

광주는 기존의 광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자기술과 연계하여 ‘광기반 양자융합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광기반 양자융합 산업화 지원을 통한 양자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광주는 ‘미래 양자정보통신 및 양자센서 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산학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양자융합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기획을 추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과제를 구성하였다.

- ① 인프라 구축: 양자융합제품 상용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클러스터 구축(▲거버넌스 구축, ▲장비구축, ▲인력양성)
- ②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개발 제품의 시험생산과 성능평가 및 테스트베드 서비스를 연결하여 제품의 상용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제품화 지원, ▲상용화 지원, ▲실증 지원)
- ③ 생태계 조성: 추진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지원기관 연계·협력 및 기업지원 체계확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네트워킹, ▲기업지원)

양자융합산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지원정책 조율 및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기획 참여기관으로는 한국광기술원, (주)우리로, (주)무한정보기술, (주)첨단소재,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함께하였다.



본 기획에서는 기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화산업과 양자기술의 접점을 구체화하고, 양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방안을 설계하였다.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안과 연계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클러스터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연구재단, IITP, 지역 내 산학연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양자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경제적 이슈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역 전문가(한국연구재단, IITP 등)를 초청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획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획을 통해 광주는 양자소재부품산업으로의 산업 전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 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기업이 양자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연구개발이 향후 실증사업 및 본격적인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연구를 넘어, 광주가 광기반 양자융합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광주의 양자융합산업화 추진은 지역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 광산업 클러스터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기획을 통해 광기반 양자소재부품산업을 지역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R&D) 기반의 산업화 추진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광주가 선제적으로 양자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기획단계에 있으나, 지속적인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정과제화를 추진하여 실제 사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는 광산업과 양자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양자기술 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stis.or.kr/home/home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741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749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051.795.502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